

기아차 하남소재공장 악취 배출로 조업 정지

광산구, 지역 최초...장기간 악취 반복 오염도 검사 부적합
기아측, 공장 가동 상당기간 어려워져 이전 검토

광산구가 악취 문제를 이유로 지역 최초로 기아자동차 하남소재공장에 대해 조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장기간 악취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공장 가동이 상당기간 어렵게 돼 기아차는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아차와 광산구에 따르면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하남소재 공장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

업 정지 기간은 이달 2일부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다.
기아차 하남소재공장은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이 잦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적 배출 허용기준(공기회석배수 1천배 이하)을 3회 이상 초과해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됐다.
공장은 올해 악취오염도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산구는 6월 14일 부적합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했다.
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를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경찰단에 고발했다.
기아차는 도심이 확장해 하남소재공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90억원 상당의 저감 설비를 신설하는 등 악취 문제 해결을 노력했으나 한계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기아차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 하남소재공장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는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소재 공장이기 때문에 조업정지 처분이 완성차 생산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기아차는 하남소재공장 이전을 확정하면 희망 근무지 중심으로 직원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조업 정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악취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앞으로 개선 여지를 지켜보면서 조업 정지 해제 등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현안 예산 협력 당부
김영록 지사, 국회의원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서울 인근 식당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박지원·이정현·손금주·이개호·황주홍·윤영일·서삼석·최도자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안과 2020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 지역구 및 전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석해 오전을 함께 하며 도정 발전과 2020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는 박지원, 이정현, 황주홍, 이개호, 손금주, 윤영일, 서삼석, 최도자 국회의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남도2대교 건설, 광주-완도 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SOC 분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국가계획 반영,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국가계획 반영, 국가 첨단단위로 복합단지 지정 등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국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을 부탁했다.
특히 서남해안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목포에는 부품 생산과 관련된 배후단지 지원부두를 조성해 '전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수도 국회에 방명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처하는 등 국회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추석 전 박광태 대표 체제 법인등기 강행할 듯

노동계 '반 노조인사' 반대하는 현대차 출신 박모씨 포함
참여자치21·정의당 시당 등 사퇴 대책위 출범

광주시가 복수의 '문제적 인사'가 포함된 3인의 등기이사 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법인 등기를 금명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이 '비리전력-비전문가'라고 규정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지역노동계가 '반 노조 인사'로 결사반대의사를 밝힌 현대자동차 출신 박모 전 부사장이 포함된 3인을 등기이사로서 올려 추석 연휴 전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4일 광주일보 취재진에게 "(주)광주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인 광주시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추

석 연휴 전 금명간 법인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 대표이사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나머지 등기이사 2명은 현대차 출신 박모 부사장과 광주은행 출신 인사라는 기존 방안이 유지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처음 적용한 자동차공장 운영이다. 광주시는 8월 말 합법적인 발기인 총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발탁한, 박 전 시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여론 추이를 주시했었다.
일부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초대 대표이사 박광태 불가' 목소리가 조지

화되며 확산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과 지역 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정의당 광주시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가)광주시의회 모니터링단 등은 '광주형일자리,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5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비리로 얼룩진 구시대 인물일 뿐 아니라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초기 설계와 경영의 토대를 구축할 전문성도 결여된 인물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박광태 대표이사 자진 사퇴 ▲이용섭 시장 사과 ▲노사정진 대타협 리더십 갖춘 차(車) 전문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가을 여행 전남으로 오세요

4가지 테마별 관광지 선정 '가을 남도여행' 책자 배포
전남도가 '단풍맞이', '문학산책', '힐링뉴트로', '뽕지순례', 4가지 테마로 전남의 가을을 즐길 대표 관광지를 선정, '가을 남도여행'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뉴트로로 새로운 붓고코를 합친 신조어로, 붓고코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테마별로 '단풍맞이'의 경우 해남 대흥사, 진도 운림산방과 같이 잘 알려진 관광지부터 그림 같은 풍경의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옥지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여수 자산공원, 피톤치드가득한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등을 소개했다.
전남 가을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단풍의 여흥을 가슴에 안고 '문학산책'을 떠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강진의 영랑생가를 시작으로 이청준의 장흥 선학동마을을 거쳐 무진기행 무대인 순천만 대대포구로 이어지는 감성코스는 가을을 삶의 심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12일 한가위 오색송편 빚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송편빚기 체험 행사 장면.

'한가위 오색 송편빚기 체험행사' 참가하세요

전남도농업박물관, 12일 개최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업박물관 전 통초가 일원에서 '한가위 오색 송편 빚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한가위 오색 송편 빚기 체험행사' 참가자는 가족단위로 50가족 200명을 11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행사 당일 팔 송편, 깨 송편, 콩 송편, 동부송편 등 다양한 종류의 송편 빚기 재료를 미리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줘 송편을 빚도록 할 방침이다.
오색송편의 종류는 흰 송편, 검정 쌀을 배합한 보라색 송편, 모싯잎 녹색 송편, 단호박 노란색 송편, 딸기 재료를 넣은 빨간색 송편 등이다. 천연 색소를 활용해 다양한 색의 송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행사장에는 참가자들이 손쉽게 송편을 빚어볼 수 있게 도우미를 배치하고, 체험을 통해 빚은 송편은 가마솥에 넣고 직접 불을 지펴 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농업박물관은 한가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행사장 옆 농경문화체험관에 투호를 비롯한 윷놀이, 승경도놀이, 널뛰기, 고리걸이,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해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